경유 51.3%·밀가루 37.6%…전남 물가상승률 'IMF급'

6월 소비자물가 7.1% 상승…체감물가 8.6% '전국 최고' 456개 품목 중 361개 올라

광주 소비자물가 6.3% 올라 '금융위기급'…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상승폭 더 커질 듯

물가가 치솟으면서 광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 물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는 6.3%, 전남은 7.1% 상승했다.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은 건 2008년 7월(6.3%)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남 물가가 7%대로 오른 건 1998년 11월(8.2%) 이후 23년 7개월 만이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때 버금가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올해 들어 광주 물가 상승률은 3.4%(1월)→3.5%(2월)→4.0%(3월)→4.7%(4월)→5.5%(5월)→6.3%(6월)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앞서 2월에 먼저 4%대 물가에 접어든 전남은 4.6%(3월)→5.5%(4월)→6.2%(5월)→7.1%(6월) 등으로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전남 모두 8%대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생활물가 상승률은 8.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상승률은 8.1%로, 전국 평균(7.4%)을 크게 웃돌고 전남과 경북(8.5%), 강원(8.4%), 제주(8.3%) 다음으로 높았다.

호남통계청이 가격을 조사한 전체 458개 중 광주에서는 355개 가격이 올랐으며, 이 중 105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은 456개 중 361개 가격이 올랐다. 110개 품목은 전년보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석유류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견인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광주 38.3%·전남 42.0% 올랐는데, 이는 1998년 10월(광주 42.6%·전남 4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등유값이 광주 55.2%·전남 74.4% 폭등했고, 경유도 광주 50.3%·전남 51.3% 올랐다.

휘발유(광주 30.7%·전남 31.6%)와 자동차용 LPG(광주 35.9%·전남 29.1%), 부탄가스(광주 26.9%·전남 24.3%) 등 석유류 모든 품목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낸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광주 9.5%·전남 9.6%를 나타냈는데, 당장 이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광주 7.7%·전남 8.7% 올랐는데,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서민의 술' 소주 외식가격이 광주 11.9%·전남 13.8% 올랐고, 생선회는 광주 16.4%·전남 12.7% 뛰었다. 밀가루가 주재료인 짬뽕(광주 11.8%·전남 10.2%)과 짜장면(광주 10.9%·전남 11.4%), 냉면(광주 11.0%·전남 7.0%) 등도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가격을 조사한 외식 품목 38개 가운데 음료와 구내식당 식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가격이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교역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밀가루(광주 44.6%·전남 37.6%)와 식용유(광주 43.3%·전남 32.5%)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다. 최근 가뭄과 폭염, 장마 등 급격한 날씨 변화로 작황이 부진해진 배추(광주 39.7%·전남 40.1%)와 무(광주 34.9%·전남 37.5%), 감자(광주 53.5%·전남 34.6%) 등 가격도 크게 뛰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악조건에도…GGM "올 목표 달성 가능"

반도체 수급난·경기침체 속 상반기 2만2500대 생산 돌파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난과 경기침체 등 악조건에서도 상반기 2만2500대를 생산하는 등 올해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GGM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만2500대 생산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 신차 캐스퍼 생산 이후 지금까지 누적 생산량은 3만5000대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관련 부품 수급난과 화물연대 파업 등 악조건 속에서 이뤄낸 결과로, 올해 목표 생산량인 5만대 생산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또 지난 3~4월 중국 봉쇄령 등 영향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당시 현대차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캐나다 등에서 부품을 긴급 공수해 오는 등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3월부터 '캐스퍼 밴'을 생산해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킨 것도 상반기 순항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 임직원이 상생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이를 극복하는 등 하반기에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생산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부터 지속적인 흑자가 이어지고 광주시가 주거비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 목표 달성과 함께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서의 안착을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물놀이 신발로 딱이죠! 5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신관 지하 1층 '크록스' 매장에서 다양한 물놀이용 신발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10일까지 최대 30% 할인 행사를 벌이며, 11~24일에는 본관 1층 행사장에서 임시 매장도 운영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AI 기업 투자 생태계 조성 협력 강화"

광주테크노파크, 전국 TP 중 첫 한국거래소서 투자유치 설명회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AC) '㈜페이스메이커스', '㈜와이앤아처'와 함께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합동 투자유치설명회(IR)를 개최했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지원한 투자유망 기업 18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 벤처캐피탈(VC)들의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해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하게 됐다.

인공지능(AI) 투자펀드 운용사를 비롯 약 40개 투자사가 현장에서 참가,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약 60여개사가 참가하는 등 총 100여개 VC가 참석해 지역 최대규모로 열렸다.

특히 이번에 참가한 광주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의 체계성, 발표능력 등에 대한 수도권 VC들의 호평이 이어졌고, 광주기업들에 대한 투자검토를 위한 별도면담 요청 등 본격적인 투자심사를 위한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테크노파크는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 내 유관기관 및 AC와 공동으로 투자자 92명, 투자 희망기업 91개사가 참가한 지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역 투자 유관기관과 합동 개최한 바 있다.

행사에 참가했던 광주지역 22개사가 VC의 직접투자 및 관련 VC들의 연계투자까지 총 52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올해 수도권 행사개최 등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도 기대된다.

이밖에 2020년 200억원 이상을 광주에 소재한 기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총 1098억원의 인공지능 1차 투자펀드도 광주테크노파크가 주도해 결성했다. 그 중 광주 소재 11개사에 직접투자 173억원, 연계투자 483억원 등 총 656억원이 투자됐으며, 추가로 올해 말까지 2~3개 기업에 약 50억원의 직접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로 몰려드는 AI 기업들이 광주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단계별로 투자 가능한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며 "지속가능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내 VC 및 AC 등과 함께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

해양에너지 SNS 서포터즈 7기 활동 시작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을 알릴 ㈜해양에너지 SNS 서포터즈 7기가 활동을 시작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회의실에서 '7기 소셜미디어(SNS) 서포터즈' 위촉식〈사진〉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6기 서포터즈들은 수료장을 받았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 16명은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등을 통해 도시가스 고객들과 소통을 이어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

17일까지 접수

광주 대표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 선발전이 오는 30일 동구 서석동 광주이스포츠경기장(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4회 대통령배 아마추어e스포츠 대회'(이하 KeG)에서 광주를 대표할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 선발을 위한 '대통령배 KeG 광주대표선발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광주이스포츠경기장 홈페이지(gicon.or.kr/esports)에서 접수한다.

광주 대표 선발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선발 종목은 단체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2개 종목과 개인전인 카트라이더 1개 종목 총 3개 정식 종목이다.

예선은 이달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오는 30일에는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본선이 치러지며, 리그 오브 레전드 및 카트라이더 2개 종목은 공식 유튜브(youtube.com/c/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단체전 1위와 및 개인전 1~2위 선수는 광주시를 대표해 오는 8월20일~21일 창원에서 진행되는 전국단위 결선에 진출한다.

이번 결선은 3년 만에 대면 진행되는 만큼 전국 아마추어 선수들과 e스포츠 관계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펀드 신규 가입 지원금 행사

비대면 상품 가입 고객 대상

광주은행이 금융상품 비대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 신규 가입 지원금을 주는 행사를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이름은 '더블로 가입하면 펀드 신규 지원금 2만원 드림'이다.

응모 대상은 올해 펀드 가입 이력이 없는 만 20세(출생연도 기준 2002년생) 이상 고객이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5개의 상품 중 2개에 가입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펀드 가입 지원금 2만원을 준다.

해당 상품은 ▲정액적립식 적금 월 10만원(6개월 이상) ▲외화 정액적립식 적금 미화 100달러(6개월 이상) ▲정기예금 100만원(6개월 이상) ▲외화 정기예금 미화 100달러(6개월 이상) ▲전남 청년 미래 적금이다.

지난 6월에 이들 중 1개 가입하고 행사 기간 안에 1개 더 가입하면 자동 응모된다.

광주은행은 매주 수요일 전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동안 응모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 신규 가입 지원금 2만원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 채널의 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를 반영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1.78(+41.44)
↑	코스닥	750.95(+28.22)
↓	금리(국고채 3년)	3.301(-0.129)
↑	환율(USD)	1300.30(+3.20)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